



# 평화의 도구

제 179 호

2008년 7월

영적보조자 : 이규성 바오로 sfo 714-537-1974  
 회 장 : 이세홍 바오로 sfo 562-860-6930  
 부회장 : 음광인 아오스딩 sfo 562-902-1585  
 서 기 : 김창순 데레사 sfo 714-447-0504  
 회 계 : 홍병숙 율리안나 sfo 714-522-0675  
 양 성 : 김영배 요한 sfo 714-447-8890  
 평의회원보조 : 김재현 안젤라 sfo 562-694-1919  
 평의회: 매월 첫째 일요일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8호실

◆ 월례회 : 매월 3째 일요일 오후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 형제회 소식

### ▶입회및 서약식

오렌지카운티 형제회의 입회식과 콜베형제회및 Rowland Heights의 성녀 글라라형제회의 서약식을 7월20일(일) 오늘 월례회 중에 성 토마스 성당에서 거행합니다.

주례:김재섭 마리비안네 OFM신부  
 주관: 이세홍 바오로 형제회장

자들을 위한 피정과 미사를 하였습니다. 참가자는 총 30명이었으며 이날 면담및 고해성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주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던 시대 배경을 통하여 본 프란치스코 영성  
 -막시밀리안 콜베 성인과 성모 기사회

수고하셨습니다 !!

7월 식사준비

식사준비: 문명금 데레사  
 이인숙 마리아  
 김창순 데레사  
 제 7 지역구

점심 도네이션 : 김상숙 아가다

▶ 8월은 제 8구역

## 축하합니다!

### 서약자 (총 5 명)

윤명현 바오로, 안희자 데레사  
 박진의 로사리아(콜베 3명)  
 최태환 어거스틴,  
 최덕희베로니카 (RH 2명)

### 입회자 (총 5 명)

정치영 요한 보스코, 배종두 미카엘,  
 배연동 안나, 조성운 안젤라,  
 홍순철 안셀모 (OC 5 명)

\*오렌지카운티 형제회의 서약식은 11월 월례회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 ▶입회및 서약준비를 위한 피정

지난 7월12일(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에서 방문으로 오신 윤비토 OFM conv.신부님을 모시고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 성당에서 입회및 서약 예정

### ▶가톨릭 워커 무숙자 봉사

8월 첫째주에 있을 무숙자 봉사는 북남미 연수회 일정과 겹치므로 북남미 연수회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8시 30분경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주소:316 Cypress Ave, Santa Ana

\*자세한 문의 : 평의회원

### ▶제8차 북남미 연수회

일시: 7월31일(목)-8월3일(일)  
 장소: 말리부 세라피정 센터

참가자(7명):

김영배 요한, 이세홍 바오로, 음광인 아오스딩, 권효정 마리아,  
 이정수 테레사, 정치영 요한 보스코, 유근숙 율리아

### ▶컵은 각자 준비하기



HAPPY BIRTHDAY!

생일을 축하합니다

7월 8일 최두영 막시미노  
 7월11일 서운순 루피나  
 7월13일 김춘옥 스텔라  
 7월14일 이수경 안나



##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권연정 마리아  
(FYLA, 서약준비반)

매주 한 번 주님안에 깊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인 주일미사의 성체성사는 한 주의 삶을 뒤돌아 보고 다시금 시작하는 한 주를 주님안에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의지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이다. 한 주를 바쁘게 지내다보면 시간을 내어 미사를 드리고 싶어도 그 시간이 나지 않거나 또는 잊어 버리기 일쑤였다.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통, 죄와 두려움들이 깊어질수록 기도생활에서 멀어지기 쉬웠던 나에게 평일 미사를 통해 받는 성체성사는 가슴떨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 봄, 많은 전례일과 기쁜 일(대자녀와 견진 대자녀를 갖게 된일)을 통해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고 또 더욱 대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랑이 되고픈 마음에 주님을 찾고 모범으로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만큼 성체성사 동안의 나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항상 성체성사를 통해 마음속에 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나눔이었다.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님을 마주하고는 내가 얼마나 욕심으로 하루하루를 사는지 반성 또 반성하게 된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성체를 모실 때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메아리처럼 되돌아온다. 수 많은 삶의 지침들과 권고들이 있지만 이 두가지의 고백과 말씀이 나에게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예수님을 닮는 길잡이 말씀이고, 길이요, 방도이다.

성체성사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와 함께 머무르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성체성사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와 머무르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항상 배고프고 (몸도 마음도) 어리석어 내가 성체를 모실 자격이 되는가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지만, 성체앞에서 “주님의 몸”이라는 고백에 기쁘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나를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제 자리에 바른 길 위에 올려 놓으시고 그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게 은총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빛의 시간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성체성사 후 묵상시간은 많은 기억을 남기지 않는다. 뚜렷이 머릿속에 남는 형체나 구절이 많지 않다. 하지만 그 날 그날의 말씀을 짧지만 돌아본 내 삶을 통해서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만의 성체묵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예수님 옆에 앉아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군중속에 앉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또 예수님의 옷끝자락만 스쳐도 내가 나을 것 같고 은총으로 기도가 이뤄진 듯 할 때도 있다.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이란 구절은 바로 이런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달동안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에 대한 특별한 공경을 드리며, 성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묵상한 일에 대해 적어 오기'라는 양성1반 과제물중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에 양성 담당 봉사자가 추천한 묵상입니다.]



## 성 프란치스코 영성



### 착한 말과 행위에 대한 영광과 영예가 하느님에게만 바쳐지기를 바라다

성 프란치스코가 마을 광장에서 테르니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였다. 그의 강론이 끝나자 분별있고 영성적인 그 곳 주교가 일어서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이 언제나 이끌어 오셨지만 말과 모범으로 교회를 돌보아 온 거룩한 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가난하고 무식하며 평범한 사람,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며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 그 자리에서 내려와 성당으로 들어갔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를 따라가서 절을 하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주교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오늘 주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신 것만큼 칭찬해 준 사람이 없었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창조주 이상으로 나를 칭송하고 존경을 보내 주더군요. 그러나 주교님께서는 분별력이 있어 귀중한 것과 무가치한 것을 분별하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칭송을 받으며 성인이라고 불리워지면 그런 말에 그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아직도 신심이 굳지 못해서 나에게서는 아들, 딸이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셨던 보화를 앗아 가시면 나에게 영광 욕 외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만한 선물을 도적이나 비신자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한층 주께 대한 믿음이 두터웠으리라 확신합니다. 화판에 그려진 우리의 주님과 복되신 동정녀의 그림에서, 흠송을 받으실 분은 주님과 복되신 동정녀입니다. 화판과 그림 그 자체는 존경 받아야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종은 단지 하느님의 그림이며,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흠송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종은 스스로 어떤 영예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비하면 좋은 화판과 그림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말이지 그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예와 영광은 하느님께만 바쳐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인간에게만 다만 수치와 비애만이 주어 질 것입니다.”

- 완덕의 거울 45 -

##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1회) (1221-1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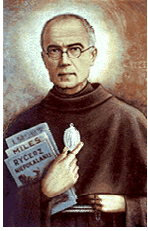
축일: 7월 15일

로마 가톨릭의 중세 시대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자 사상가이며 토마스 아퀴나스와 동시대인으로 큰 발자취를 남겼다. 경건하고 사랑이 흐르는 면에서 ‘세라핍적 박사’로 알려진 그는 수많은 저서들을 남겼다. 흔히 프란치스코회 수도복에 추기경의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지며, 망토 가장자리에는 세라핍이 장식되어 있다. 신학자, 농부, 짐꾼, 직조공의 수호 성인이다. 중부 이탈리아의 바뇨레지오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소년 시절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로 중병에서 회복되었다. 그리고 후에는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와 그 회원들의 모범에 영향을 받



고 특히 그의 신학적 스승인 헤일스의 알렉산드로의 영향을 받아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들어갔고 후에는 신학 교수가 되었다. 1257년에는 수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수사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저술한 프란치스코에 대한 전기, 수도원의 이상과 생활 방식에 관한 저서, 그 밖에도 수도원을 변호하기 위한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좀더 깊은 사랑의 실천을 상기시켜 준 하느님의 도구였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역사가는 프란치스코회 추기경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그는 뛰어난 학자, 웅변가, 탁월한 성인으로서 친절함과, 가까이 하기 쉬운 소박함과, 온유함과 동정심을 지닌 사람이다. 그는 그의 완덕 때문에 하느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 막시밀리아노 콜베 성인편

1941년 7월, 막시밀리아노 신부님이 있던 제 14호 감방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감방에서 한 사람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포로 한 사람이 도망을 하면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 20명을 굶겨 죽이는 형벌에 처하겠다는 수용소장 프리치의 엄명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몸을 떨며 앞으로 다가올 공포스런 죽음을 걱정 했습니다.

그 날 밤 제 14호 감방에 있는 포로들은 누구 한 사람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같은 무서운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으로써 이 감옥을 벗어나고 싶어하던 포로들이었지만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죽는 건 좋다. 그러나, 어떤 죽음보다 가장 잔인한 굶주려 죽는 것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굶겨 죽이는 형벌은 창자를 말라 붙게 하고 핏줄을 불붙게 하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날을 괴로움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는 이 '죽음의 감방'에 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었으므로 누구나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공포의 장소에서는 때로 짐승의 부르짖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이 벌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인간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감방을 지키는 간수들마저 이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의 고통보다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목마름은 견딜 길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감방 안의 포로들은 대부분 조국 폴란드를 위해 싸우던 용감한 사람들이지만 "내가 뽀힌다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신부님은 자기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린소년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섭니? 겁내지 마라. 죽음이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용소장은 도망간 포로들을 찾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14호 감방만 남고 모두 해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4호 감방 포로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는 일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나치 헌병들이 이들을 감시하며 몽둥

이를 휘둘러 줄을 세웠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이따금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몽둥이질이 소용이 없자 형리들은 기절해 쓰러진 불쌍한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차례로 사람들 위에 내던져 포개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쓰러진 사람의 무더기는 커져갔습니다. 끝까지 버티고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더위 때문에 부어 올라 알아볼 수 없게 되어갔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신부, 그는 스무 번도 넘게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도 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 밑의 성모 마리아처럼 신부님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되풀이했던 그 말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칠월의 태양 아래서 신부님의 꿈은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오후 3시경이 되어서야 포로들은 반시간의 휴식을 얻고 수우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끝마친 후 밤이 올 때까지 차렷 자세로 서서 명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용소장인 프리치는 포로에게 자기의 위력을 보여 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간 점호 시간이 가까와 오고 있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는 하루의 중노동을 끝내고 돌아온 다른 감방 죄수들이 줄을 맞춰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햇볕 아래서 고문당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안타까운 눈짓을 보냈습니다.

공포의 분위기가 운동장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치 소장은 천천히 운동장을 돌며 하루의 보고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14호 감방죄수들이 서 있는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프리치 소장은 죄수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속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일순간의 고요는 모든 포로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갑자기 프리치 소장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의 한마디는 죽음 같은 침묵 위에 찰랑찰랑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놈이 안 잡혔다. 너희 중에 10명이 저 굶겨 죽이는 감방에서 죽어야 한다. 이 다음에는 20명을 보낼 것이다." 그는 첫째 줄로 다가섰습니다.

[8월 월보에 계속됩니다....]